



순창읍 사회단체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순창읍 사회단체협의회(회장 김중국)는 최근 관내 식당에서 사회단체장 및 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그간 개최하지 못하다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협의회 임원선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군 재난기본소득 지원안내, 공익직불제와 순창군 미래발전 아이디어 공모 참여 안내, 군정발전과 읍민화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회단체협의회장에는 후보추천을 통해 서한복 읍민회장이 선출됐다. /순창=이왕원 기자



무진장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무진장소방서,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지난 29일, 관내 공동주택 주민 자율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사무소 관계자·주민 대상으로 화재안전리더를 위한 교육을 정수군 성산빌라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리더로 양성해 화재발생시 소방대 도착 전 신속한 초기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주택 화재안전 리더 양성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교육내용은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아파트 화재안전매뉴얼과 함께 기도폐쇄처치 및 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해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피난기구 불법방치 신고창구 운영

남원소방서(서장 김광수)는 관내 영업장의 안전을 위해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방치 신고창구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완강기 지지대 탈락·부식·방치 등 관행적 위반행위를 발굴하고 개선조치를 통해 건축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이 접수되면 특정소방대상물에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 후 현지에 서 시정 또는 조치명령 등을 통해 안전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견민 예방안전 팀장은 "완강기 등 피난기구 불법방치 신고창구 운영과 완강기 사용법 홍보 및 교육 등을 병행해 유사시 이를 이용한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간절주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기준에 맞는 피난기구를 설치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학생들에게 도움 되고파!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3백만원 기탁

무주군은 지난 29일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에서 방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측에 장학금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은 지역 소재 대학으로서 무주군 인재 육성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으로 군수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는 전주기전대 관계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전주기전대 산학협력단 조덕현 단장은 "코로나19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라며 "오늘 전해지는 장학금이 학업에 열중하며 꿈을 실현해갈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은 전주교육노동조합과 무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무주군로컬JOB센터의 수행기관으로서 무주군 관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취업 알선, △고용 훈련 등을 진행 중이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어려울 때



좋은 뜻을 가지고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장학 사업을 추진하는 보람을 느낀다"라며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우리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배우고 즐기며 자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2020년 봄철 조림사업 완료

완주군이 경제적이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및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구축을 위한 봄철 조림사업을 완료했다. 지난 29일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경제림 조성, 큰나무공의 조림, 미세먼지지감 조림사업 등 306ha 면적에 총 604천본을 식재했다고 밝혔다. 식재된 수종으로는 관백, 소나무, 백합나무 등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 450천본(172ha)과 산주, 지역주민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고로쇠나무, 뽕나무 등 특용수종 30ha를 식재했다. 이외에도 도시 외곽 산림, 벌채지 등 미세먼지 발생 지역 근교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 기능을 위하여 편백과 소나무 대묘 45천본(30ha)을 식재하고, 산림경관 개선 및 생활권 주변 녹지조성을 위한 큰나무공의 조림사업을 추진했다.



반창원 산림복지과장은 "미래세대에 산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묘목을 적지적소에 알맞게 식재하고 풀베기·숲가꾸기 등 조림지 사후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노인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 사전교육

(사)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지회장 이종선)는 최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2층 대강당에서 시장, 사업참여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실시에 앞서 교육장소 소독, 참여자들간의 2m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교육은 박준배 김제시장의 축사, 이종선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장의 격려사, 안전예방교육, 사업활동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은 마을회관 내 안전예방활동 및 치매예방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하고, 노후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바탕으로 즐겁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일



자리 참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생활화와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을 잘 지키는 것만이 자신과 가족·이웃을 지키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동통지구대, 아동안전지킴이와 감담회 개최

남원경찰서(서장 강태호) 동통지구대(대장 이동권)는 지난 29일 아동안전지킴이(이하 지킴이) 16명이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근무방법, 근무장소 등 근무교양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지킴이는 5월 27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근무는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초등학교주변,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왕래하는 취약지점을 집중적으로 순찰, 아동대상범죄, 비행청소년 선도 및 교통사고예방 등에 앞장서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시민소통실, 복숭아 농가 일손돕기 실시

남원시 시민소통실 직원들은 지난 29일 일손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는 수지면 산정마을 복숭아 농가를 찾아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정성을 다해 작업을 도왔다. 이동현 시민소통실장은 "코로나 19로 더욱 힘들어 하는 농가에 작지만 힘을 보탬 수 있어 좋았으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공무원 노동조합,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진안군 공무원 노동조합(지부장 유승조)는 지난 29일 진안의 미래를 위한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진안사랑장학재단에 후원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유승조 지부장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군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결론

▲김승규(35사단 근무, 고 김형철·김성이씨 장남)·신혜린(정수군청 근무, 신성용 일요신문 전북본부장·김애란씨 장녀)양= 일시: 6월 7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호텔 3층 세인트홀  
▲박정민(더치앤인 근무, 예치엠엘리베이터 이사 박문규·홍민자씨 장남)·김히연(더치앤인 근무, 농협중앙회 부장·前농협은행 전북본부장 김장근·김현숙의 장녀)양= 일시: 6월 13일(토) 오전 11시, 장소: 전주 그랜드힐스 3층 세인트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